

“수소차 · 연료전지 세계1위 목표”

문 대통령,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보고회서

“수소차, 2022년까지 8만대 생산… 수소경제 효과 25조원 전망
보조금 택시·트럭까지 확대… 도심 충전소 3년 내 310개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 본관에서 진행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략 보고회’ 모두 발언에서 수소경제를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강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우리 수소차와 연료전지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년 내 1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이다.

전날 충남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이 이날 수소경제 로드맵을 공식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며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 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수소경제가 미래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수소경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은실가스와 미세 먼지를 배출하는 탄소와 달리 수소는 부산물이 물 뿐인, 깨끗한 에너지이기도 하다”며 “특히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

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수소차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톤,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다.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도 우리가 가진 강점이다. 총연장 5000여km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한다면 천연가스에서 경제적으로 수소를 추출해 각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수소차 생산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수소차 1824대를 생산해 그 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다. 올해는 4000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이후 수백만대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시청 본관에서 진행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 고용유발인원은 지금까지 1만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연관 기업, 연구개발 인재를에게도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 하고 상용화 하도록 돕겠다”며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방식을 다양화하고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 현재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까지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고, 경철버스 820대도 2021년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며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 확대로 신산업을 확대하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아야”

전북도는 겨울철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폐렴, 뇌수막염 등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비말)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염증은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도 보건당국은 현재 만 65세 이상(올해 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연중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편한 시간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전 시에는 평소 복용중인 약 및 아픈 증상을 의료인에게 상세히 이야기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한 뒤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17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이·취임식이 열렸다.

“차별화된 여성단체 자리매김”

김지혜 신임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취임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르윈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이·취임식 이·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협회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지회장 이·취임식, 제8대 임원 임명장 수여, 공로패와 표창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기관장 및 여성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지난 3년(2016~2018) 재임기간 동안 여성경제인의 대변자로 위상을 높인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제7대 박영자 회장은 “지난 3년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께 내어드리고 앞으로 더욱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겸임부교수를 지내고 현재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며 제8대 지회

장으로 선출된 김지혜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첫 출발과 행보는 다소 미약하겠지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걸음씩 나아가겠다”며, “차별화된 여성단체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2,600여명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를 새로이 이끌어 주실 제8대 지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합장선거 카운트다운… 전북도선관위, 설명회 돌입

장수군을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도내에선 109곳 선출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각 시군 선거위원회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시작했다.

17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장수군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15개 시·군위원회별로 연다.

이번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도내에서는 농·수·축협·산림조합 109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시군별 조합수로는 익산과 김제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완주 10곳, 정읍·고창·부안 8곳, 남원 7곳 등 순이다.

선거인 수는 익산이 2만7984명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선거인 조합

은 전주 덕진으로 5414명이다.

전북도선관위가 진행하는 설명회는 후보자등록 요건·신청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5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진안〉
안천면 울현마을 208,000
안천면 구례마을 220,000
안천면 상리마을 240,000
안천면 중리마을 288,000
안천면 하리마을 208,000
안천면 도라마을 128,000
안천면 교동마을 120,000
안천면 보한마을 728,000
〈1월 18일자〉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전북도는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대도약 정책협의체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실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분과위 운영에 대한 논의

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전북 대도약 정책협의체 논의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안) 발표를 통해 우선과제와 차기과제로 총 8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년 활동가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등 4명의 위원을 이날 회의에서 추가 위촉하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